

TV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다중인격’ 장애, 사랑으로 치유하다

지성·황정음 주연 MBC ‘킬미 힐미’ 오늘 밤 10시 첫 방송

7일 밤 10시 시작하는 MBC TV 수목드라마 ‘킬미 힐미’도 많은 드라마처럼 ‘치유’를 주제로 삼았다. 다만 범진나 스릴러, 공포 영화에서 주로 썼던 다중인격이라는 소재를 유쾌하고 밝은 로맨틱 코미디로 담아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서울 마포구 삼양동 MBC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김진만 PD는 “다양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드라마”라고 밝혔다.

“우리 드라마는 로맨틱 코미디를 표방하지만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거대한 이야기들이 미스터리하게 펼쳐집니다. 남자 주인공의 인격이 다양한 만큼 극 장르도 다양해요. 로맨틱 코미디에서 액션으로 튀었다가 ‘브로맨스’(남자들의 우정)에 심지어 주성치까지 등장하니까요.” 다중인격 장애를 앓는 남자 주인공 차도현은 배우 지성(38)이 맡았다. 차도현은 완벽한 조건을 갖춘 20대 후반의 연예기획사 부사장이자, 하지만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나 안의 나’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진다. 드라마는 뇌쇄적인 올드파탈부터 토끼 인형을 좋아하는 남자 어린이 등 변화무쌍한 차도현의 인격들이 빚어내는 좌충우돌을 통해 유쾌한 캐릭터 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자 주인공이자 차도현의 비밀 주치의인 오리진은 SBS TV ‘끝없는 사랑’을 막 끝낸 황정음(30)이 연기한다. MBC TV 시트콤 ‘자봉 뚱고 하이킥’(2009~2010) 시절의 황정음을 다시 떠올리게 할 발랄한 캐릭터다. 드라마는 다중인격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만난 차도현·오리진이 오호려 그 장애의 도움을 받아 뿌리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에 이르는 이야기를 담아냈다.

로맨틱코미디로 시작한 드라마는 차도현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는 과정을 통해 두 집안의 숨겨진 가족사를 보여주면서 멜로로 흐름을 예정이다. “킬미 힐미”의 본질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슴 절절한 멜로”라고 밝힌 김 PD는 작품 후반부에는 두 집안에 얽힌 이야기 본격적으로 전개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품은 지성과 황정음이 지난 2013년 큰 인기를 끌었던 KBS 2TV 정통멜로 드라마 ‘비밀’ 이후 2년 만에 재회한 사실로도 화제가 됐다.

지성은 “우리가 ‘비밀’을 찍을 때 로맨틱 코미디에서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서로 바랐었다”면서 “다시 이렇게 만난만큼 지금이 때인 것 같다”고 밝혔다. 황정음도 이어받아 “지성 오빠랑 다시 만나서 좋은 인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면서 “‘비밀’이 제 첫 멜로 작품이었는데 지성 오빠가 잘 어울렸다”고 강조했다. 드라마는 현빈·한지민 주연의 ‘하이드 지킬, 나’(1월 21일 방송)와 맞붙는다.

공교롭게도 ‘킬미 힐미’는 작년 가을 한빈의 남자주인공 캐스팅설로 흥역을 치른 적이 있다. 김 PD는 “지금의 주연 배우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면서 “지금 배우들은 정말 최고의 캐스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tvN ‘미생’에서 철두철미한 강 대리로 출연했던 오민석(35)이 차도현의 연적인 차기준 사장으로 얼굴을 비춘다. 오민석은 “대리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니 제 방도 생기고 아래 직원도 생겨서 기쁘다”면서 “‘미생’ 강 대리랑 비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 차별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World News Review, EBS 뉴스, and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show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수능열기, 유종현, 윤선명의 국어, and other educational and entertainment content.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대비, 친절한 수학, and other educational and entertainment conten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7일(음 11월 17일 癸未)

Table of horoscopes for the day, listing zodiac signs (子,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and advice.

“처음으로 받은 큰 관심 신곡에도 이어졌으면”

‘토토가’ 출연 소찬휘, ‘글래스 하트’ 발표

“대뻘한 이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무한도전’의 힘이 크다는 걸 느낍니다.” 6일 신곡 ‘글래스 하트’(Glass Heart)를 발표한 가수 소찬휘(43)는 서울 흥대 부근의 한 카페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신곡에 출연 언론의 관심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말했다. 소찬휘의 오랜 발매 소식은 그가 출연한 ‘무한도전-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이하 토토가) 방송과 맞물리며 화제가 됐다. ‘글래스 하트’는 액면 그대로 ‘우리 심장’을 뜻한다. 사랑 때문에 겁쟁이가 된 여성의 마음을 담은 발라드곡이라고 소찬휘는 소개했다. 소찬휘는 “작년 가을부터 준비했는데 공교롭게 무한도전 방송 직후 싱글이 나오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시는 것 같다. 아침, 저녁 뉴스에 연달아 제 신보 소식이 나오기는 처음”이라며 웃었다.

하지만 ‘무한도전’에서 선보인 ‘100만 볼트 고음’을 기대하는 관객이라면 실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가 평소 부르는 음역보다 한키 반 정도 낮아요. 제게 이런 목소리가 있었나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소찬휘에게도 이런 목소리, 이런 창법도 있구나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래스 하트’는 그가 ‘토토가’ 무대에서 선보인 ‘티어스’(Tears)의 작사·작곡가가 다시 의기투합해 만든 곡이라는 점에서도 화제가 됐다. 정작 소찬휘는 ‘티어스’를 ‘애증의 대상’이라고 표현했다. ‘티어스’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지만 강한 이미지가 각인되면서 다른 노래를 부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티어스’는 부르기도 어렵지만 그 뒤로는 어떤 곡이 나와도 ‘티어스’를 넘지 못했다”며 “제 노래는 공동으로 음악이 높고 진행이 빨라 술 쥔 데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을 선택했다. 나이 먹으니 나도 조용한 노래 하고 싶더라”라며 크게 웃었다. 그러나 이런 겸손한 발언과 달리 그는 ‘토토가’ 출연 이후 과거와 변함없는 가장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람들이 저를 보러 올 때는 비주얼이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노래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공연이 있든 없든 일주일에 한두번은 꼭 노래해 목을 열린 상태로 유지해요. 젊을 때는 술을 했는데 이제는 끊었습니다.” 자기 관리만큼 ‘하고 싶은 음악’을 향한 노력도 여전했다. 잘 알려진대로 소찬휘는 록밴드 출신이다. 댄스 가수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그의 음악적 행보를 보면 록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는 “지난 20년은 하고 싶은 음악을 위해 써온 시간 같다”면서도 “이제는 관객이 대중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면 거기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실용음악과의 전임 교수로, 제자들을 일선에서 직접 가르치는 그는 최근 가요 트렌드에 대해 “좀 급해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요즘 음악은 사운드를 함께 즐긴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귀에 꽂히는 음악은 1990년대가 더 많지 않나 싶다”면서 “‘토토가’를 인터넷에서 다시 봤는데 노래가 하나같이 주옥같더라”라 또다시 호탕하게 웃었다. /연합뉴스